



모의 언어 발레와 흥겨운 춤과 노래가 어울린 뮤지컬 연극이 불교와 만났다. 6월 8일부터 18일까지 예술의전당 토월극장 무대 위에 선 보일 발레뮤지컬 '심청'이다. 설화를 바탕으로 한 고려의 판소리계 고전소설 <심청전>이 발레뮤지컬이라는 새로운 장르로 탄생된 것. '아빠와 딸이 함께 보는 공연데이트'라는 부제는 극의 프롤로그에서 수술을 앞둔 눈 먼 딸에게 동화 <심청전>을 읽어주는 아빠, 극 속의 극으로 펼쳐지는 심 봉사와 그의 딸 청이를 통해 무대와 관객 그리고 한국의 고전이 삼위일체가 된다. 유니버설발레단이 선사하는 이번 공연은 지난 해 초연되어 한국 발레를 전 세계로 역수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향후 매년 새롭게 수정 보완하여 10년 릴레이 공연을 목표로 한다. 효의 참된 의미와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울 수 있는 좋은 시간이다.

청이가 나고 자란 도화마을은 극락의 다른 이름이다. 복숭아는 천상의 공양물이라 하여 불화와 불교 건축은 물론 불교 설화에서 천인의 음식을 상징한다. 이러

의 구조를 형성한다. 시주금 사기단으로 풍자되는 가짜 스님들의 말을 곧이 믿고 눈을 뜰 수 있다며 좋아하는 심 봉사를 보며 청이는 이별 후 아버지의 생활을 걱정한다. 청이가 빠진 인당수(仰堂水)는 법(法)과 비법(非法)을 통찰하는 부처님의 미간백호(眉間白毫)이자 화엄의 바다인 해인(海印)의 상징이다. 수술실로 향하는 소녀도 서서히 마취되면서 옹궁으로 향하는 청이와 만난다. 청이의 부모에 대한 지극한 효성과 바른 품성은 마을 주민은 물론 뱃사람 조공에게 연민을 불러일으키고, 옹왕을 감동시킨다. 그리고 연꽃을 통해 청이는 보살의

몸으로 상품상생(上品上生)하여 황후가 된다. 오락악세(汚濁惡世)에서도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청정함을 대표하는 불교의 상징이 바로 연꽃이다. 반면 심봉사는 무명에 휩싸인 마음의 장님이다. 탱덕어멈은 턱을 잃은 여인으로 악행을 쉬지 않는다. 결국 청이는 전국의 모든 맹인을 궁으로 불러들여 연회를 베푸니 중생을 향한 보살의 마음이 이와 같을까, 심봉사는 효녀 청이의 부름에 눈을 뜨고, 미혹한 중생심도 잠회하게 된다. 소녀 또한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세상의 빛을 보게 된다. (02)2204-1041 가연숙 기자 omflower@dium.net

돈황의 바람이 들려주는 천년의 실�크로드

서용展 리씨갤러리에서 5월 27일까지

"돈황(敦煌)의 매력은 '자연미'입니다. 천년의 시간이 살아있는 돈황의 기운을 캔버스에 담고 싶습니다." 중국 북서쪽 고비사막에 자리한 실�크로드의 관문, 돈황 벽화의 찬란함에 매료

된 화가 서용(46.동덕여대 한국화 교수) 씨가 삼정동에 위치한 리씨갤러리에서 '돈황의 바람에게 묻다-천상언어(天上言語)' 전시를 열었다. 벽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작업을 펼쳐온 화가에게 돈황은 마음의 고향과도 같은 곳이

다. 그래서 화가는 기회가 날 때마다 돈황 행 비행기에 오른다. 이번 전시는 기존의 모사와 재구성에서 한층 더 깊이 있는 신앙인의 자세와 미적 체험의 색채로 다가간다. 2004년 개인전 이후 3년 반 만에 돌아온 그가 들려주는 돈황의 바람소리는 신비롭다. 그의 캔버스는 흙을 이겨 울린 편이다. 세월이 흘러 편이 갈라지더라도 본연한 흙의 성질에 남다른 애정을 품는다. 그 위에 글씨나 그림의 본을 그대로 옮기는 '임도(臨模)'의 작업을 하고 의도적으로 낡음의 자연주의를 표현한다. 화가는 돈황의 바람소리를 전하는 매신자이고 싶다고 말한다. 붓다의 형상을 그리며 새로운 개념의 불교미술로 세계 유일의 돈황 화가고 싶어 한다. "양평 작업실에 황사가 불면 문득 돈황이 그리워집니다." 그리고 이런 독백을 한다. "이 바람은 돈황에서 왔을까!" 화가 서용씨에게 천상언어는 돈황과 화가가 하나되는 과정이었다. (02)3210-0467 가연숙 기자



'돈황의 바람에게 묻다-천상언어(天上言語)' 작품 앞에선 화가.

불교성악의 밤 초대합니다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하여 5월 27일부터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공연장에서 '불교성악의 밤' 그리고 대한불교소년소녀합창단과 무용단의 '정기 연주회'가 펼쳐진다. 사단법인 불교음악협회는 전통 불교음악을 계승하여 발전시키고 현대 불교음악의 창작과 보급은 물론 전문 음악인 양성을 위해 힘써왔다. 5월 27일과 28일에는 불교 성악의 밤이 무대 위에 오른다. 아름다운 음악으로 롬비니의 찬가가 울려 퍼질 이번 공연에는 베르디의 라 트라비아타의 '축배의 노래'부터 영화 '모정'의 주제곡까지 찬불가와 오페라, 뮤지컬과 가곡이 어우러진다. 더욱이 찬불가의 시조를 범패에서 찾음으로써 새로운 불교 음악을 시도한다. 5월 30일과 31일에는 제11회 대한불교소년소녀합창단과 무용단의 정기 연주회가 열린다. 현대적인 찬불가를 통한 신앙적 정서의 일치점을 찾을 수 있는 시간으로 삶의 행복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여는 기회를 마련하는 자리이다. (02)725-7849 가연숙 기자

'현대불교' 후원은 포교에 동참하는 길!



사찰음식의 모든 것
정산 스님 산촌 대표 · 동산불교대 사찰음식학과장

죽순 땅콩 볶음



장을 다스리고 화를 풀어주는 죽순 동백경화증 예방에 효과가 있는 땅콩

5, 6월께 녹색이나 황록색으로 솟아나는 죽순은 대나무의 땅속줄기로 부터 가지가 갈라져 나온 아리고 연한 싹이다. 독특하게 씹히는 맛과 은은한 향 때문에 식용으로 많이 쓰이는 죽순은 건강식품으로도 훌륭한 효능을 지니고 있다. 죽순의 씹히는 맛을 내는 섬유질 성분은 장의 연동 운동을 도와주며 장의 기능을 조절하는 작용을 한다. 특히 이 섬유질에는 특수 효소가 함유되어 있어 장 안의 유해균이 잘 자라도록 도와준다. 또한 유산을 예방하는 식품으로 손꼽히며 화(火)를 풀어주는 효능이 있어서 평소 신경이 예민한 사람이나 화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 죽순은 죽이, 죽아, 죽태라고도 불리는데 하루에 20g 정도를 차로 만들어두고 수시로 마시면 유산 예방뿐 아니라 태아도 튼튼해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동의보감>에 따르면 '죽순은 맛이 달고 약간 찬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때문에 변열과 갈증을 해소해주

며 몸 안의 체액이 순조롭게 돌아가도록 해주고 원기를 회복시키는 작용을 한다. 하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죽순의 찬 성질로 인해 복부가 차가워진 다'고 했으므로 조심하는 게 좋다. 체질적으로 손발이 유난히 차갑거나, 입술색이 푸른빛을 띠는 사람은 더욱 주의해야 한다. 땅콩에 가장 많이 들어 있는 성분인 불포화지방산은 많이 먹어도 살이 찌지 않으며 고혈압의 원인이 되는 혈전 콜레스테롤도 높이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혈관 벽에 붙어있는 콜레스테롤을 씻어내는 효과가 있어 깨끗한 혈관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당뇨병환자에게 적절한 식품이다. 땅콩은 두뇌를 좋게 하는 비타민B와 레시틴, 아미노산이 풍부한 고단백, 고지방으로 비타민B군이 풍부하게 들어 있는 고칼로리 식품이다. 세포를 튼튼하게 하고 적혈구를 증가시킨다. 철의 흡수를 돕는 작용을 하는 비타민E 성분이 혈관 벽을 청소하기 때문에 동맥경화증 예방에 뛰어난 효과를 발휘하여 노화를 방지한다.

죽순 땅콩볶음 재료: 죽순, 땅콩, 파리고추, 식용유, 간장

- 만드는 법
1. 죽순은 썰뜨물에 껍질 채 푹 삶아서 바로 찬물에 식힌 다음 껍질을 벗기고 한 입 크기로 먹기 좋게 썰어둔다.
 2. 땅콩은 물을 넉넉히 붓고 삶아서 맑은 물에 헹구어서 건져두면 짠 맛이 빠진다.
 3. 파리고추는 꼭지를 따고 깨끗이 씻어둔다.
 4. 뜨거운 볶음냄비에 기름을 두른 후에 ①, ②, ③을 각각 간장으로 간을 맞추면서 볶은 다음 같이 합해서 다시 한번 볶아 그릇에 예쁘게 담는다.